**~~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

~~조선이 있었다. 그 당시 조선은 어느 신을 숭배하게 되는데 어느 날 신이 주인공의 아내를 원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인공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간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자주 벌어졌기에 아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주인공은 방해를 뿌리치고 아내를 찾으러 따라갔지만 눈 앞에서 아내는 제물로 바쳐지고 만다.~~

~~이를 눈앞에서 본 주인공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제단으로 뛰어가던 중 포졸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당해 죽고 만다. 포졸들은 주인공의 시체를 대충 야산에다 묻어버렸다.~~

~~10년 뒤~~

~~주인공은 아내의 복수를 하겠다는 강력한 사념들이 모여 부활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하고 여정을 떠난다.~~

~~감정을 먹고 사는 신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분노를 원하여 주인공에게 힘을 주고 부활시켜 복수를 하도록 부추긴다. 사실 이 신은 제물을 받은 신하고 같은 존재이다.~~

~~사실 신은 왕 밑에 간신 짓을 하던 신하의 몸에 들어와 있었고 화려한 언변으로 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다.~~

**프롤로그**

주인공이 살아있을 시절에 사실 무당.

세자가 신병이 났는데 이를 왕실에서는 구분을 하지 못하니 전국의 유능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모았으나 그 누구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다. 한 신하가 나서 혹여나 신병일 수도 있으니 무당을 부르라 하자 왕이 격분하여 호통을 치나 이내 진정하고 받아들여 무당 중에 가장 유능하다는 소문이 파다한 주인공을 불렀다.

주인공은 이를 신병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누름 굿을 하려 하는데 잡신이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신이 눌러 앉았음을 깨닫는다. 어찌되었든 누름 굿을 시도하나 실패하게 되는데 신이 세자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고 세자인척 연기를 하는데 이는 티가 거의 나지 않아 주인공도 눈치를 채지 못한다. 주인공은 왕에게 큰 상을 약속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저 멀리서 집 방향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불길한 생각이 든 주인공은 집으로 뛰어간다. 집에 도착한 주인공은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주인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만다.

갑자기 주인공의 등에 칼이 꽂히니 주인공은 입에서 피를 토했다. 사실 상을 준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세자가 신병이 들었었다는 것이 세간에 퍼지면 안되기 때문에 왕실에서 자객을 보내 주인공의 집을 불태우고 주인공까지 죽여버린 것이었다. 칼이 꽂힌 주인공은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자객은 주인공의 시체를 대충 야산에다 묻어버렸다.

5년 뒤 주인공은 복수를 하겠다는 강력한 사념들이 모여 부활을 하게 된다. 집이 있던 자리에 찾아간 주인공은 폭삭 무너져버린 집 잔해에서 여동생에게 선물했던 청동 종 이 그을린 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를 본 주인공은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복수를 다짐하고 여정을 떠난다.

**스토리 진행**-------------튜토리얼 챕터--------------

부활 이후 집 가는 길에 산적 떼 에 둘러싸인 마을 사람(주모(준모))를 발견  
이후 도와주고 (이때 능력을 자연스럽게 보여줌)  
집 들러서 아이템 챙기고 주모가 마을로 안내해준다.  
----------------------관아 챕터--------------------  
(컷신 시작) 마을에 도착해서는 개판 난 마을 상황 설명을 주모가 해주던 도중  
마침 사람들을 끌고가던 포졸이 주인공을 딱 찝어서 “ㄴㅓ 이ㄹㅣ로 와” 라고 함  
주인공이 이를 거부하자 포졸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제압을 시도하고 전투 시작

포졸을 처치한 이후 주모에게 추가 설명 (저 새끼들이 원흉인 것 같다)을 듣고  
관아로 처 들어간다. (전투)

관아 주변을 지키는 포졸들을 잡아내며 관아에 도착함  
관아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달려드는 몇몇 포졸들을 잡아낸 뒤 관아의 메인건물인 동헌 앞문을 지키고 있는 검사와 창병을 잡아내고 동헌 앞문을 열고 들어간다.  
사또와의 전투 후 사또는 죽는다 (처형 모션 같은 컷신 / 사또 가루 돼서 사라짐 / 반드시 죽음, 몸 못 뺏음)  
(사또가 죽고 나서 동헌 옆에 서있던 이방이 매우 빠르게 도망간다. 쫒아가서 죽일 수 있고 죽이게 된다면 이 뒤에 원래 나오는 컷 신은 나오지 않고 그 컷신과 관련된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컷신 - (왕이 해당 사태에 대한 보고를 이방에게 듣는다. 왕이 신하를 시켜서 그 녀석들(사물놀이 패)을 보내라고 한다.)

(컷신 페이드아웃 후 페이드인 하며 주모 앞으로 데려다 놓음)  
----------------------시장 챕터--------------------  
주모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한다.  
주모는 주인공을 자기 주막으로 데려가 국밥 한 그릇 대접한다고 하고 데려간다.  
주막에 가서 국밥을 먹고 나오던 중 어디선가 악기소리가 들려온다.  
의문을 품던 주인공은 악기소리가 나는 근원지를 찾아가게 된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커짐)

소리 근원지를 찾아가보니 사물놀이 패가 있고 주변이 초토화가 돼있었다.  
(사물놀이 패와 전투 / 적을 죽이면 적이 쓰고 있던 해당 악기 소리가 비활성화 됨 / 왜인지 적 하나를 죽이고 몸을 뺏으려 하면 빼앗아지지 않음 / 사물놀이 패를 다 잡고 한 명의 몸을 빼앗으면 나머지 3명의 시체가 서서히 사라짐, 4가지 능력 다 쓸 수 있음, 스킬은 차례대로만 쓸 수 있음)  
(컷신 )

(컷신 페이드아웃 후 페이드인 하며 주모 앞으로 데려다 놓음)  
사건 마무리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주인공에게 주모가  
어떨 절에 있는 스님이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거 같다 라고 말하여 절로 떠나게 된다  
----------------------절 챕터--------------------  
절로 향하는 중 귀(鬼)에게 공격 받고 있는 스님을 발견 하게 된다  
귀들이 모두 정리하고 스님에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듣는다  
원래 절에서 봉인 해둔 도깨비가 있었는데 파계승들에 의해 봉인이 풀리게 되고 절과 절 주변의 귀신들이 날뛰게 되었고 그리고 대장스님이 절 가장 깊숙한 곳에 잡혀 있음을 듣게 된다.  
전후 상황을 들은 주인공은 스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귀들을 물리치며 절로 향하게 된다  
절에 도착한 주인공은 파괴된 절을 확인한다  
이후 절을 탐색하던 중 파계승 무리와 마주친다(전투)  
대장스님은 이미 봉인 된 도깨비에게 잠식 당한 뒤였고 대장 스님과 싸우게 된다  
대장 스님에게서 나온 도깨비를 물리치고 스님을 구하고  
스님과 대화 한 후에 스님에게서 궁궐과 연결된 수로 지도를 얻게 된다

//여기까지는 정해진 루트

이후는 선택으로 골라가고 전부 깨고 오면 수로를 뚫고 궁궐로 갈수 있게 됨

------------------호수 챕터 ---------------------